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

사방을 둘러봐도 인적은 드물고 모래바람만 불어오는 외딴 지역, 사람들의 발길이 유독 끊이질 않는 곳이 있다. 현지인들에게 ‘코리아 병원’으로 불리는 곳이다.

민형래 원장(55)과 이곳의 인연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신대병원 일반외과 전공의 수련을 마칠 즈음이었다. 외국 선배가 있는 네팔 탄센병원에서 2개월간 봉사활동을 하게 됐고, 귀국길에 한국의 비영리단체에서 인근 국가에 세운 병원을 가볼 계획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후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장 한국에 돌아와 짐을 꾸렸고 아내와 9세, 5세 된 두 딸을 데리고 현지로 향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죠. 부산 영도 밖으로 나가서 살아본 적 없는 아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다 아내의 공입니다.”

해당 국가의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여기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를 갖춘 의료기관이 들어서자 많은 이들이 환영했다. 민 원장은 24시간 수술, 입원, 응급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3년 민 원장은 병원에서 차로 10시간쯤 떨어진 사막지역에 가게 됐다. 그곳에서 몸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고 이동 진료를 시작했다. 마을을 찾아다니며 환자들을 돌봤고, 수술이 필요하면 병원으로 데려와 무료로 치료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우선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었다. 그해 12월, 학교가 없어 배움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기숙학교인 호스텔을 설립했다. 30명으로 시작한 호스텔은 13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며 공부하는 공간으로 발전했다. 이곳 졸업생들은 호스텔의 교사로, 민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로 성장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 학교를 운영하기도 한다.

사막 한가운데 종합병원을 설립하기로 마음을 굳힌 민 원장은

2013년 7월, 7년간의 노력 끝에 신생아실과 수술실, 검사실은 물론 50여 개의 병상을 갖춘 병원의 문을 열었다. 병원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10세 미만 아이들은 무료로 치료해주는 방침을 정했고, 성인에게도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있다. 민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은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를 갖추었으며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다. 3천5백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1천여 건의 백내장 수술과 3천여 건의 다양한 수술이 이뤄졌다. 지금도 매일 100명, 월평균 2천5백 명이 찾고 있다.

현지에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민 원장은 매번 놀라운 기적을 만난다. 죽음의 문턱을 오가던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때, 휠체어를 타고 온 아이가 온전히 일어설 때 그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희를 만끽한다.  글 권주희 작가



환자를 수술 중인 민형래 원장.